

사회



21일 오후 2시께 시범단절시설인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하는 가상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전대비 위기 대응훈련 했더니...

블랙아웃? 시민들 “나몰라라”

관공서 적극적, 상가는 문열고 에어컨 ‘땡땡’  
전날 전력 소비량과 별 차이 없어 참여 저조

21일 오후 전력공급이 완전 단절되는 ‘블랙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정전 대비훈련이 개최됐으나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의면해 정부의 읍 여를 전력부족 사태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공공기관들은 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도심 일부 상가에서는 냉방장치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하는 등 대조적이었다. 훈련이 실시된 이날 오후 2~3시 광주지역 전력 소비량 역시 407만 6000kW로, 전날 같은 시간 423만 7000kW에 비해 겨우 16만1000kW(3.7%)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만큼 훈련 참여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훈련은 이날 오후 1시30분 준비단계(예비전력 500만kW 미만), 오후 2시 사이렌과 함께 경계단계(예비전력 200만kW 미만)에 접어들면서 시작됐다. 이미 준비단계부터 광주시청 등 149개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맞춰 복도 조명 등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했다. 시범단절 시설로 지정된 광주시 북구 용봉중에서는 교내 수전반 전력을 차단했다. 학생들은 교실 전등과 선풍기가 꺼진 상황에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수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층 전이 수전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컷아웃스위치(Cut Out Switch)를 제

때 차단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점도 드러났다. 또 같은 시각 시범단절시설인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인원을 구조하는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이 실시됐다. 구조대는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가상피해자들을 엠블런스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전력이 모두 차단되자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부채 등으로 더위를 식히고, 사전예고를 듣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시범단절 시설 4곳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반 가정과 상가, 산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면서 ‘절전 참여’의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 100여곳의 상가에서는 ‘에너지 절약 계도 기간’과 훈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 출입구를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었다. 한 의류 매장 직원은 “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 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 손님들이 불편해 할 것 같아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통학버스-승용차 충돌

21일 오전 8시34분께 강진군 병영면 병영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강진교육청 통학버스가 승용차와 부딪치고 나서 길옆 전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정씨, 버스 운전자 김모(58)씨,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강진 고교생 12명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인근 장흥종합병원과 강진의료원, 장흥우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DNA 때문에 5년전 성추행 들들나

○20대 청년이 잦은 범죄행각으로 지난해 대검찰청에 DNA가 등록되면서 5년 전인 동화고 1학년 당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경찰서청.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치근 배달을 하고 있는 이모(20)씨는 지난 2007년 당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태권도장 2층 계단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17)양을 마구 때리고 강제 추행했다는 것. ○경찰은 2007년 수사팀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이씨 정액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대검찰청 수사자 DNA와 대조한 끝에 최근 흡소한 이씨를 검거.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오늘 소환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CN커뮤니케이션스(이하 CNC)에 선거 대행을 맡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22일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CNC의 허위 견적서와 이에 따른 선거비과다 계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스가 허위 견적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최소 6000만원 이상의 선거비를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선거전력 컨설팅 비용 등을

신원위가 보전해주는 항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선거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상당한 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 시교육감에 이어 다음주에는 CNC 측 관계자, CNC 거래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CNC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시교육감 측은 “선관위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으며 부풀리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주선 징역 1년·유태명 2년 구형

광주지검, 동구 불법선거

전직 동장 투신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동구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유태명(68)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는 징역 3년,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

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박 의원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동구의회 남모(여·56) 의원은 징역 1년6월, 동구사랑여성회 지원2동 회장 배모(여·54)씨는 징역 10월, 백모(57)씨 등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1명은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동구 제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교육 명문중 폐교

광주지법, 원고 기각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1일 재단법인 명문중학회가 광주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 인정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는 정규 교육

과정 탈락자나 만학도들의 배움터였던 평생교육시설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명문중학회 명문중학교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수업일수 부족, 부적합한 편입학 처리, 교육과정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해 8월 퇴출이 결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악질 성폭행범 꼭 잡는다” 인터폴 수사 요청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친구와 함께 성폭행하고 홍콩으로 달아난 여행사 가이드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Intropol·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윤모(27)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달

안안 공범 오모(43)씨를 같은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A(여·25)씨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또 윤씨 등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최근 홍콩으로 도피한 오씨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오씨의 외모와 별명이 유명 개그맨과 비슷해 이번 사건에 연예인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해프닝도 있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llergy treatment. Title: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Features a photo of a doctor and text describing the treatment process and benefits. Contact info: www.dr-lee.co.kr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남골당' (Gulakjeon Namgol-dang). Title: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Features a photo of the temple and text about their services. Contact info: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